

“국민 상식 탄핵한 편파수사” “늦었지만 진실 밝혀져 다행”

“昌-權-文과 ‘反이명박 연대’ 공동유세 전개”

“이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보답하겠다”

■ 정동영·신당 반응

검찰의 BBK의혹 중간수사 발표와 결과에 대해 정동영 대통령직수호추진단 후보는 “이번 발표는 상식을 탄핵한 수사”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5일 MBC 라디오에서 20분간의 방송 연설을 통해 정 후보는 “검찰의 발표대로라면 이명박 후보는 유령이다. 이 사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검찰을 성토했다.

정 후보는 또한, “고 박종철 열사의 고문 치사 때 검찰이 ‘탁 치니까, 억하고 죽더라.’라고 했다는 말이 생각난다.”라며 “지금 이명박 후보는 가슴을 쓸어내리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검은 미소를 짓겠지만 국민은 진실을 향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직수호추진단 측도 검찰이 제대로 된 소환조사도 없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은 명백한 편파수사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검찰과의 전면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수호추진단은 공세의 타격을 이명박 후보와 검찰을 한데 묶어 수사의 부당성을 적극 알리는데 총력을 쏟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대선을 ‘거짓과 정직의 싸움’으

로 규정하고 당 차원에서 이날 명동과 광화문에서 잇따라 항의집회에 나서는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 검찰의 편파수사를 규탄하는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신당 측은 이날 ‘이명박 특검법’을 발의를 계기로 비 한나라당 공동 전선을 구축, ‘이명박 대 반 이명박’의 대선 구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무소속 이회창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민주당 이인제 후보 등과 ‘반 이명박 연대’를 모토로 공동유세를 전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후보는 6일까지 검찰규탄 집회에 참석하고 7일부터는 전북 등 지방유세 일정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이명박·한나라 반응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는 5일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늦었지만 진실이 밝혀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수사결과 발표 직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긴급 선대위 회의에서 “저

로 인해 국민 여러분의 마음 고생이 심했을 줄로 안다.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 있기에 대한 민국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께 심려 끼쳐 드린 것을

조금이라도 갚는 진정한 길은 정권 교체체를 반드시 이뤄 경제를 살리고 갈라진 국민을 하나로 통합해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6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에 대한 미안함과 감사의 뜻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범여권을 향해 남은 선거운동 기간 포지티브 선거, 정책선거를 치르자고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강제섭 대표도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 직후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권정이며, 법과 정의의 승리”라며 환영했다.

강 대표는 “은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BBK 사건이 결국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났다”면서 “그런데도 지금 이 순간까지 반성은 커녕 여지와 트집잡기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는데 회대의 사기극에 의지해 어찌 보겠다는 망상을 이제 꺾어야 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우겨도 사슴이 말(馬)이 될 수는 없다”면서 “(대통령직수호추진단) 후안무치하게도 특검법안까지 내겠다고 하는데 모든 것이 가려졌는데도 정치공작에 미련을 둔다면 국민과 함께 응분의 책임을 끝까지 물겠다”고 경고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통령직수호추진단 공동선대위원장과 의원들이 5일 오후 검찰의 이명박 후보 무혐의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서울 명동에서 열린 항의집회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각종 언론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전면 무혐의'를 밝힌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수사 결과 발표를 지켜본 한나라당 박형준, 나경원 대변인과 부대변인들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리카 김 “반박자료·증거 내놓겠다”

‘BBK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김경준씨의 누나인 에리카 김씨와 김씨의 부인인 이모라씨는 5일 오전 11시(한국시간 6일 새벽 4시) LA 코리아타운의 월셔프라자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국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반박하는 자료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에리카 김씨는 4일(현지 시각) 한국 검찰의 수사 발표 직후 “예상했던 결과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또 다시 보여줬다”면서 “내일 예정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BBK 추가조작 사건에 관련돼 있음을 밝히는 증거와 자료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또 “검찰은 BBK가 김경준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라고 진술했다고 발표했으나 어제 오후 김경준의 자필 메모가 언론에 공개되기 전까지 그런 진술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자필 메모가 언론에 미리 공개됨으로써 수사 결과 발표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검찰 수사 발표에서) 오래전부터 한나라당이 제출하겠다고 했던 이명박 후보 친필 사인은 제출됐는지조차 밝히지 않았고 영문 계약서에 있는 이 후보 친필 사인에 대한 내용은 왜 발표하지 않았

는지 의문이다”면서 “내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 발표의 진위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경준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오재원 변호사도 6일 오전 11시 자신의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오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직후 “김경준씨의 주장과는 다른 결론이 나왔다”며 “김경준씨가 수사과정에서 얘기한 취지를 설명하는 한편 기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답변할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청와대 “국민 납득시킬 수 있을지...”

청와대는 5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BBK 관련 의혹과 무관하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논평할 것이 없다”면서 매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전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의 ‘BBK 수사 결과’에 대해 청와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느냐는 질문에 “검찰의 수사 내용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힌 전례가 없고, 입장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한나라당을 제외한 대다수 대선 후보와 정파들이 ‘검찰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격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대해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자체에 대해 논평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일관되게 ‘노 코멘트’ 입장을 견지했다.

대통령직수호추진단이 ‘BBK 특검법’을 발의할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서도 전 대변인은 “아직 특검법안 내용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아는 바 없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BBK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처럼 청와대는 표면적 또는 공식적으로는 ‘노 코멘트’라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검찰의 이날 BBK 수사 결과가 그동안 불거져왔던 각종 의혹들을 명쾌하게 불식시키고 국민들을 납득시키

는 데는 부족한 점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없지 않다.

이명박 후보를 둘러싼 핵심 의혹들이었던 BBK 추가조작 공모여부, 다섯 및 BBK 실소유주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은 ‘혐의없음’이라고 발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공금증들을 해소하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위양스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됐던 방대한 의혹들과 비교할 때 오늘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혐의없음’이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근거와 과정들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검찰의 발표만 갖고는 섣불리 납득이 안되고 의아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수사 결과 인정” 지원행보 계속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측은 5일 BBK 추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이명박 후보 ‘무혐의’ 발표에 대해 “수사 결과를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더 이상의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박 전 대표측 일각에서는 검찰이 읊셔낸 벤처스 추가조작 사건 뿐 아니라 BBK 및 현대자동차의 실소유주 문제, 도곡동광 매각 대금 등 한나라당 경선 기간 제기됐던 모든 의혹을 털어버린 것과 관련해선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며 꺼운치 못한 속내

를 드러내기도 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검찰 발표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지만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측근은 “검찰에서 나름대로 확보된 증거관계를 갖고 결론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당장 뒤집을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이 없는 한 검찰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박 전 대표의 행보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측근은 “검찰의 공식 발표를 믿어야지 다른 방법이 있겠느냐”

면서 “이 후보의 도덕성 문제는 여전히 남는 것이지만 이제는 당원으로서 도리를 다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이 후보 당선에 대해 열심히 해야 대선 이후 우리에게도 설 자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검찰 발표가 너무 세게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세면 오히려 역풍이 있을 수 있다”면서 “모든 의혹을 지나치게 말끔하게 해소해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여당측에서 반발이 강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2007년 수입 디젤 승용차 판매 1위
해운동 님은 차, 푸조 307SW HDi

www.peugeot.com

307 SW PEUGEOT

공용버스 모터스(주)

TEL: 02-388-0400